

# 국가가 설계한 ‘기적’ : 영화 <바보들의 기적>(奇蹟·笨小孩, 2022)의 감동 서사와 정치적 봉합

이 보 람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영화 <바보들의 기적(奇蹟·笨小孩, Nice View)>(2022)의 ‘기적’ 서사를 단순한 개인의 분투가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시간·공간·주체의 배열 속에서 구성된 결과로 분석한다. 영화는 2013년을 비공식 경제 단속과 질서 재편의 출발점으로, 2019년을 코로나19 이전의 성취와 안정을 봉합한 시점으로, 2022년을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다시 호출된 현재로 배치한다. 이러한 삼중의 시간 구성은 연대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국가가 선택한 정치적 순간들을 전략적으로 엮어낸 결과다. 영화 속 선전(深圳)은 개혁개방의 상징이자 발전 신화의 무대로 제시되지만, 주변부의 불평등과 희생은 감동 서사 속에서 은폐된다. 징하오와 ‘기적 공동체’의 분투는 연대와 책임의 감동으로 번역되며, 제도적 결핍과 구조적 모순을 가려낸 채 국가 발전의 낙관적 비전을 수행한다. 결말부의 “모두가 기적의 창조자”라는 메시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후원과 긴밀히 결합되어, 개인적 성공이 국가적 비전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바보들의 기적>이 ‘기적’ 서사를 통해 감동과 낙관의 정서를 정치적 서사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신시대 중국 영화의 문화정치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주제어 : 바보들의 기적(奇蹟·笨小孩), 기적 서사, 선전(深圳), 국가 기획, 정치적 시간

## I. 들어가며

영화 〈바보들의 기적(奇蹟·笨小孩, Nice View)〉(2022)은 2013년 선전(深圳)을 배경으로,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여동생 징통(景彤)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 부품 사업에 뛰어든 스무 살 청년 징하오(景浩)의 여정을 따라간다. 징통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분투의 원동력으로 그려지며, 수술비 마련이라는 절실한 과제는 징하오가 모든 것을 걸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영화의 ‘기적’ 서사는 바로 이 돌봄의 수행에서 출발한다.

〈바보들의 기적〉은 표면적으로 분투와 연대, 성공을 다룬 따뜻한 휴먼 드라마처럼 보이지만, 영화가 ‘기적’이라 부르는 성취는 개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발전 경로의 일부에 가깝다. 징하오의 책임감과 자기희생, 동료들의 연대는 서사를 이끄는 동력으로 기능하며, 그로부터 생성된 감동은 국가가 요청하는 낙관과 안정의 정서로 번역된다. 영화는 선전의 화려한 도시 이미지와 낙후된 주변부 공간을 병치해 초고속 발전 신화와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내지만, 결국 인물들의 희생과 연대를 통해 그 간극을 감동적으로 봉합한다.

따라서 〈바보들의 기적〉이 재현하는 ‘기적’은 개인의 끈기와 분투 끝에 우연히 도달한 결과가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위기·성장·성공·안정(봉합)’의 시간 구조 속에서 완성된다. 여기서 ‘설계’란 국가가 제작을 직접 주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화가 선택한 시간·공간·주체의 배열이 국가 담론과 긴밀히 맞물려 결과적으로 국가 비전을 정당화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를 뜻한다. 영화는 주인공의 노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동시에 제도적 결핍과 구조적 모순을 감동의 정서로 덮으며, 국가가 요청하는 이상적 성공 모델을 관객의 인식 속에 내면화한다.

이러한 서사적 경향을 두고 최근 중국 연구자들은 ‘따뜻한 현실주의(溫暖現實主義)’라 명명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董曉婷 2023, 劉金旭 2022, 胡智鋒 2023). 그러나 이 명명은 감동과 연대의 정서를

매개로 국가 담론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기능한다. '신주류(新主流) 영화'와 결합한 '따뜻한 현실주의'는 주선율적 가치, 시장 친화적 서사, 감동의 윤리를 하나로 묶어 국가 전략의 문화적 수행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은 바로 이 수행성의 층위에 주목하며, '기적'의 감동이 어떻게 국가 비전을 정서적으로 재현하고 정당화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영화 <바보들의 기적>을 둘러싼 기존 연구들은 작품이 형성하는 감동 서사와 사회적 함의를 다층적으로 해석해 왔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논의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영화가 사회적 곤경을 단순한 비극으로 제시하지 않고, 이를 희망과 선의의 이야기로 전환하는 서사적 전략에 주목한 연구들이다. 자오스청과 가오위안(趙世城·高原 2022)은 이 작품이 신체적·정신적 상처와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면서도 그 고통을 연대와 회복의 서사로 변환시켜, 관객이 기대하는 감동의 경험을 완성했다고 분석한다. 자오스린(趙詩琳 2022)은 이 영화를 “인문적 배려와 현실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 작품으로 평가하며, 가족 간의 사랑과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가 영화의 감정선을 형성하는 핵심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또한 춘절 연휴(春節檔) 상영이라는 시기적 맥락이 이러한 정서를 관객의 공감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분석한다.

둘째, 영화의 상업적 흥행을 현실주의적 연출 태도와 드라마·코미디 장르의 결합이라는 서사 전략으로 해석한 연구들이다. 류추윈(劉秋韻 2022)은 이 작품을 ‘장르화된 현실주의’의 성공 사례로 규정하며, 전형적인 3막 구조에 희극적 요소를 결합해 현실주의 영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 천위팅(陳玉婷 2023)은 흥행 요인을 영화의 상업화 전략에서 찾는다. 그는 사회적 문제를 드라마와 코미디라는 대중적 장르와 결합해 서사의 흡인력을 확보하고, 위기-극복 구조 속에 코믹한 장면을 배치하여 관객이 현실의 긴장을 인식하면서도 오락적 즐거움을 유지하도록 설계했다고 분석한다.

셋째, 청년 창업 서사와 국가 담론의 접점을 탐색한 연구들이다. 우빙(吳冰 2023)은 이 작품을 중국 창업 영화의 계보 속에 위치시키며, 동시대 청년층이 처한 현실과 맞닿은 ‘격려의 신호’로 해석한다. 펑리췌(奉麗群 2023)은 ‘기적 공동체(奇蹟分隊)’의 협력과 징하오가 자오천창(趙振昌)의 시험을 완수하는 과정을 신시대 청년에게 요구되는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정신이 구현된 사례로 본다. 나아가 그는 징하오의 성공이 개인적 성취에 머물지 않고 국가 발전의 가치와 결합함으로써 “끊임 없는 분투를 통해서만 기적이 가능하다”는 신시대의 윤리를 전면화한다고 분석한다. 자오첸(趙倩 2022)은 〈바보들의 기적〉을 ‘동기 부여형 영화(勵志類型電影)’로 분류하며, 주인공의 계층 상승과 사회적 인정의 서사 구조를 분석한다.

넷째, 도시 공간의 재현과 그 상징적 의미에 주목한 연구들이다. 장후이위(張慧瑜 2022)는 영화가 선전의 마천루와 성중춘(城中村)의 낙후된 공간을 병치함으로써 발전의 이면을 드러내는 새로운 도시 서사를 구축했다고 평가한다. 추리(邱麗 2022)는 인물들의 위기 극복 과정을 ‘이질적 공간’의 구성과 연관 지어 해석하며, 소시민적 주체의 도전 정신을 강조한다. 왕징(王晶 2022)은 선전의 다층적 공간—지리적 풍경, 사회적 삶, 상징적 의미—이 서로 얽히며 도시의 화려함과 불안정한 현실을 동시에 드러낸다고 분석한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영화가 공간의 시각적 대비와 상징적 배열을 통해 사회적 위계와 발전 담론을 가시화한다고 본다.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바보들의 기적〉을 감동적 서사, 장르적 성취, 청년 분투, 도시 공간 재현의 측면에서 주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 연구자들은 이 영화가 개인의 노력과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현실의 곤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따뜻하게 묘사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감동 서사가 국가의 비전과 결합하는 방식, 그리고 그 감정이 체제의 안정과 낙관을 유지하도록 작동하는 정서적 메커니즘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

〈바보들의 기적〉은 청년의 분투를 다룬 단순한 휴먼 드라마가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정치적 시간과 도시의 발전 신화, 그리고 '책임·돌봄·희생'의 가치를 결합해 개인의 노력과 공동체의 헌신을 국가 발전의 서사로 엮어낸다. 영화의 감동은 이러한 가치들을 개인의 도덕적 선택이자 사회적 의무로 전환하며, 현실의 제도적 결핍과 구조적 모순을 감정적 연대의 언어로 봉합한다. 이때 '기적'은 불평등한 현실을 극복한 결과가 아니라, 국가가 설정한 질서 속에서 가능성을 증명하는 서사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화가 감동의 서사를 통해 국가의 가치와 질서를 자연스러운 정서로 내면화하게 만드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 II. 기적은 언제 호출되는가: 정치적 시간의 설계

〈바보들의 기적〉은 서사의 시간을 2013년에서 2019년까지 설정하고, 개봉 연도인 2022년에 그 과거를 다시 불러낸다. 이 세 시점은 단순한 회고의 장치가 아니라, 국가가 선택한 특정한 역사적 순간들을 이어 붙여 '기적'의 서사를 구성하는 틀로 작동한다. 2013년은 위기의 발단, 2019년은 성취의 완결로 제시되며, 영화는 이 두 시점을 연결함으로써 개인의 성공을 국가 발전의 서사 속에 위치시킨다. 따라서 '언제'라는 질문은 시간의 순서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와 성장을 어떤 논리로 설계하고 의미화하는가를 드러내는 핵심 단서로 기능한다.

### 1. 2013년: '기적'의 전제로서 위기

2013년은 시진핑 집권 초기, 국가가 질서 재편과 경제 체제 개편을 추진하며 비공식 경제를 집중 단속하던 시기였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산자이폰(山寨機)' 산업의 대대적 정리다. '산자이(山寨)'는 본래 '소규

모 지하 공장'을 뜻하는 광둥어(粵語)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정식 유통망 밖에서 생산되는 비공식 제조 체계를 가리킨다.

이 개념은 2000년대 후반 급속히 성장한 산자이폰 산업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산자이폰은 저렴한 가격과 빠른 모방으로 서민층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2009년에는 전 세계 정품 휴대폰 11.3억 대 중 약 12.9%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銀路 외 2010:321; 이중희 2010:295). 그러나 2013년 국무원이 발표한 전국 단속 지침(國辦發(2013)36號)은 이 생태계를 급격히 위축시켰고,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국가 개입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어 2015년 '대중창업·만민혁신(大眾創業·萬眾創新)' 정책이 시행되며, 창업은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되었다(國發(2015)32號).

이러한 정책 흐름은 2013년의 단속을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제도 전환의 계기로 전환하고, 2019년의 '기적' 서사가 완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즉, 비공식 경제의 단속과 창업 장려는 단절된 국면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궤도 속에서 작동하며, 개인의 좌절을 국가가 승인한 성공의 전제로 재구성한다.

화물창고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SNE(深寧通訊)사의 반품 휴대폰 컨테이너가 헐값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구입한다. 이 물량은 이탈리아에서 품질 문제로 반송된, 정식 유통망 밖의 제품이었다. 징하오는 이 휴대폰을 수리해 리퍼폰 형태로 되팔기 위해 화창베이(華強北) 상점과 계약을 맺지만, 그 계획은 2013년 산자이폰 단속 국면과 맞물리며 곧 무산된다.<sup>1)</sup>

영화의 사건 전개는 국가가 설정한 시간의 구도와 긴밀히 맞물려 진

1) 화창베이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중국 제조업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다. 선전시 푸톈구(福田區)에 위치한 이 전자제품 도매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집산지이자 '산자이' 문화의 발원지로, 모방과 변형을 통해 저가 시장을 형성하고 이후 혁신의 거점으로 전환된 과정을 상징한다. 영화는 이 공간을 징하오의 첫 시도의 무대로 삼아, 개인의 모험이 국가 정책과 사회 구조의 경계에서 어떤 제약을 받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행된다. 징하오는 거액의 수술비를 1년 반 안에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위험한 모험을 시작한다. 그는 량 아저씨(梁永成)에게 여동생의 수술비뿐 아니라 입원비, 약값, 간병비까지 모두 합하면 최소 30만 위안(元), 많게는 50만 위안이 필요하다고 털어놓는다. 지금처럼 수리점을 운영해서는 여동생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징하오는 SNE(深寧通訊)사의 휴대폰 부품을 분해해 SEN사에 납품하는 새로운 사업을 계획한다. 품질 검사에서 합격률이 85% 이상이면 닷 달 안에 80만 위안을 벌 수 있다고 계산한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에 반드시 해 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장면은 징하오의 선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와 생계 압박 속에서 강요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후의 전개는 SNE사의 두 인물—소비자사업본부 운영총괄 리핑(李平)과 자오천창 회장—의 대비를 통해 국가가 규정한 노동 윤리와 성공의 규범을 드러낸다. 리핑은 회사의 중간관리자이자 제도권에 안정적으로 편입된 엘리트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징하오를 “노동자(打工仔)”라 부르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충고한다. 이에 징하오는 “당신도 결국 노동자 아니냐”고 되묻는다. 이 짧은 대화는 체제 내부의 안정된 직장인과 대학 진학조차 포기해야 했던 청년 가장 사이의 사회적 간극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반면 자오천창은 민간 기업가이지만, 근면·창업·도전의 가치를 국가 발전의 논리와 동일시하며 체제의 윤리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징하오의 발상을 단순한 모험이 아닌, 선전의 발전 신화와 접속하는 실천으로 읽는다. 징하오의 구상은 그의 시선 속에서 ‘녹색 산업 체인’ 구축이라는 국가적 비전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자오천창은 계약금 없음, 공장·인력 미지원, 품질검사 불합격 시 계약 파기라는 가혹한 조건을 내세워 징하오의 가능성을 시험한다. 그는 ‘기적’을 승인하는 권력자이자, 그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시험자로 기능한다.

결국 영화는 2013년의 실패와 재도전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배치하며, 개인의 분투를 국가 질서 재편의 과정 속에 재배열한다. 이러한 시

간 구성은 다음 절에서 다룰 2019년의 ‘완결된 성공’을 예비하는 정치적 기점이 된다.

## 2. 2019년: 통합된 성공, 지워진 불안

2013년의 위기와 재도전이 국가 질서 재편 속에서 ‘기획된 시련’이었다면, 〈바보들의 기적〉이 도달하는 2019년은 그 서사가 완결되는 지점이다. 이때 2019년은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하나는 징하오와 동료들의 분투를 성취로 통합하는 서사의 종착점이며, 다른 하나는 불안과 위기를 철저히 배제하고 안정과 번영의 이미지만을 전면화하는 정치적 기획이다. 다시 말해, 2019년은 개인의 성공이 국가 서사로 확정되는 동시에, 실패와 불안이 의도적으로 삭제되는 시간이다. 영화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의 시점을 결말로 설정함으로써 불안이 도래하기 전의 안정된 순간을 기억의 형태로 고정한다. 그 결과 관객은 다가올 위기를 의식하지 못한 채, ‘성취’와 ‘낙관’으로 대표되는 국가적 비전을 자연스럽게 수용한다.

결말부에서 징하오의 성취는 여동생의 수술비를 마련하는 개인적 목표를 넘어, 함께 고난을 견딘 ‘기적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성과를 나누는 윤리적 완결로 확장된다. 자오천창 회장은 그가 수행한 부품 재활용 사업을 높이 평가하며, 2년간 500만 위안 규모의 정식 계약을 제안한다. 이는 징하오가 처음 맺었던 80만 위안 규모의 단기 계약을 훨씬 넘어서는 조건으로, 계약금과 기간 보증까지 포함된 제도적 보상이다. 그의 인내와 노력은 국가가 장려하는 ‘대중창업·만민혁신’ 정책 기조와 맞물리며, 2015년 ‘하오징(好景) 텔레콤’ 설립으로 이어진다. 징하오의 생존 전략은 국가가 승인한 제도적 성공으로 전환되고, 자오천창은 가혹한 시험자로서의 위치에서 국가 비전의 후원자로 이동한다.

이후 신제품 발표회 장면은 ‘기적 공동체’의 후일담을 제시한다. 무대 위 인물들의 얼굴이 차례로 비춰지고, 자막은 그들이 각자 이룬 ‘기

적'을 소개한다. 2015년 장룡하오(張龍豪)는 '룽하오 권투클럽'을 세워 수백 명의 수련생을 양성하고, 세 곳의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한다. 같은 해, 왕춘메이(汪春梅)는 '노동자 지원센터(打工人幫扶中心)'를 설립해 천여 명의 노동자를 지원하는 센터장으로 일한다. 량 아저씨는 징하오의 곁을 지키며 '하오징 텔레콤' 인사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중웨이(鍾偉) 할아버지는 같은 해 '지상 노인 아파트(吉祥老年公寓)'를 설립해 200여 명의 노인과 함께 생활한다. 2017년 장차오(張超)와 류형즈(劉恒志)는 '쭈이펑(追風 인터넷카페)'를 공동 창업해 광둥·홍콩·마카오 다완구(大灣區) 전역에 일곱 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청년 사업가로 성장한다. 마지막으로 여동생 징통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해,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는다. 영화는 이들의 후일담을 통해 '기적'이 개인의 분투에서 공동체적 성취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성취 시점이 대부분 2015년 전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중창업·만민혁신' 정책이 시행된 시기와 정확히 겹치며, 개인의 삶의 전환이 곧 국가 정책의 이상적 실현으로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영화는 사회 주변부 인물들의 생존을 창업과 사회적 기여라는 제도적 경로로 재편하고, 그 과정을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한다. 이때 '기적'은 더 이상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정책적 시간과 제도적 틀 속에서만 가능한 성공의 산물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 영화는 '기적 공동체'의 성공을 집합적 성취로 제시한 뒤, "신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투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의 창조자입니다"라는 자막을 통해 그 성취를 국가적 가치와 직접 연결한다.<sup>2)</sup>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선전의 마천루와 시민들의 얼굴이

2) 엔딩 크레딧 직전 화면에는 “신시대의 모든 분투하는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적의 창조자입니다(致敬新時代裏每一個拼搏奮鬥的你，我們都是奇蹟的創造者)”라는 자막이 제시된다. 이 문장은 영화의 메시지를 개괄하며, 개인의 노력과 국가적 비전을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교차 편집되며, 인물들의 성취가 도시 발전의 스펙터클과 동일한 이미지로 중첩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적 병치는 2019년 중국 사회가 직면했던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 청년 고용 불안 등 구조적 현실을 철저히 삭제한다. 불안은 화면 밖으로 밀려나고, 안정과 성취만이 남아 그것이 유일한 현실인 양 관객의 기억 속에 각인된다. 결국 영화의 결말은 개인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도시와 국가의 서사로 포섭하며, 2019년을 ‘통합된 성공’과 ‘지워진 불안’의 시간으로 완결한다.

### 3. 2022년: 춘절, 다시 불러낸 ‘기적’

2019년은 청년의 분투가 국가 발전의 성취로 치환되고, 사회의 불안이 안정과 낙관의 감정으로 정렬되는 지점이다. 이어지는 2022년 춘절은 그 완결된 ‘기적’을 다시 현재로 불러내어, 국가적 낙관을 갱신하고 체제의 안정감을 재확인하는 의례적이자 정치적 시간이다. 영화는 서사 속에서 2013년의 출발과 2019년의 완결을 구분하고, 개봉 시점을 2022년 춘절로 설정함으로써 과거의 서사를 현재의 시간과 연결한다. 관객은 이를 통해 이미 완결된 ‘기적’을 다시 경험하며, 그것을 여전히 유효한 현실의 성취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겹치면서 ‘기적’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갱신되고 반복적으로 재확인되는 전망으로 제시된다.

‘춘절’은 중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이 시기 사람들은 일상을 잠시 멈추고 흩어진 가족이 함께 모여 유대를 확인한다. 춘절의 문화적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귀향 행렬인 ‘춘윈(春運)’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새해의 복과 안녕을 기원하고, 슬픔과 불운의 이야기를 되도록 피한다. 셋째, 폭죽과 불꽃놀이, 각종 공연과 놀이가 연휴 전반을 축제의 분위기로 채운다(祁海 2022:29). 이러한 맥락에서 춘절 영화시장은 대체로 블록버스터, 가족 드라마, 코미디, 영웅 서사 등 집단적 낙관을 보증하는 장르가 주를 이루었다.

마린페이와 류차오(馬躍非·劉超 2021:37)는 춘절 연휴 영화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공유·참여·연대·공동 신념의 형성'을 이끄는 민족적 의례라고 지적한다. 영화 관람은 개인의 여가가 아니라 집단 정서를 재생산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례적 성격은 국가가 요청하는 정치적 시간과 긴밀히 맞물린다. 즉, 춘절은 감정의 차원에서 국가의 시간을 정당화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바보들의 기적〉은 이러한 춘절 영화의 의례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팬데믹 이후 불안과 피로가 남아 있던 시점에서, 영화는 2019년의 성취를 2022년 춘절의 스크린 위에 다시 소환함으로써 집단적 안정과 낙관의 감정을 회복시키려 한다. 감독 원무예(文牧野)는 관객이 징하오의 이야기를 통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배우고 “노력하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느끼길 바랐다고 밝힌 바 있다(杜思夢 2022). 그의 발언은 영화가 개인의 분투를 집단적 신념으로 확장하고, 국가가 요청하는 낙관의 정서를 감정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서적 호소력은 상업적 성과로 이어졌다. 영화는 개봉 7일 만에 6.68억 위안의 흥행 수익을 올렸고, 13일째 10억 위안을 돌파하며 춘절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다. 최종 누적 수입은 13.79억 위안으로, 2022년 연간 박스오피스 5위를 기록했다(貓眼2022年票房排行榜). 〈바보들의 기적〉이 개봉한 2022년 춘절 연휴의 총 관객 수는 1억 명이 넘었고, 전체 흥행 수익은 60.35억 위안으로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중국영화자료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춘절 연휴 상영작의 평균 관객 만족도는 85.3점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劉正山 2022:17-18), 그중 〈바보들의 기적〉은 86점을 받아, 흥행과 평단 모두에서 호평을 얻었다. 이 지표는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중국 영화시장이 활력을 회복했음을 보여준다.

이 성과는 단순한 상업적 회복을 넘어선다. 자오쥘(趙軍 2021:18)은 춘절 연휴 영화의 흥행을 “중국 사회의 일상이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

는 신호로 해석하며, 이를 “중국을 이해하는(讀懂中國)” 하나의 창구로 본다. 이 관점에서 <바보들의 기적>의 상업적 성공은 사회적 불안이 상징적으로 완화되는 순간을 재현한다. 춘절이라는 의례적 시간은 비관과 불안을 회피하는 문화적 관습과 결합해 팬데믹의 충격, 고용 불안, 경제 둔화 등 구조적 긴장을 화면 밖으로 밀어낸다. 그 결과 관객은 가족애·희망·연대로 조직된 정서를 통해 ‘안정이 회복된 현재’를 경험하게 된다.

요컨대, <바보들의 기적>의 2022년 춘절 개봉은 국가적 기획과 결탁한 정치적 시간 속에서, 2019년에 완결된 ‘기적’의 서사를 다시 호출하고 정당화하는 사건으로 읽을 수 있다. 영화는 징하오와 ‘기적 공동체’의 이야기를 가족 드라마의 감동으로 번역하고, 그 정서를 국가적 낙관과 사회적 안정의 언어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현실의 불안과 균열은 드러나지 않고, 감동과 희망의 정서 속에 흡수된다.

### Ⅲ. 기적은 어디에서 구축되는가: 정치적 공간의 설계

#### 1. 국가가 기획한 발전 신화의 공간

선전은 1980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불과 수십 년 만에 작은 어촌에서 세계적 도시로 성장하며 ‘선전 속도’라는 발전 신화를 만들어냈다. “시간은 돈이고, 효율은 생명이다”라는 구호가 보여 주듯, 이 신화는 국가 주도의 초고속 개발과 제도 실험이 결합해 형성된 정치적 기획의 결과였다. ‘3일 1층’이라는 건설 기록, 전역 군인의 대규모 투입, 특구에 부여된 제도적 특혜는 모두 개혁개방기의 압축적 현대화 과정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孫飛 2018). 결국 ‘선전 속도’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경험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리듬을 응축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 노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알레고리로 기능한다.

덩샤오핑은 1984년 남순강화(南巡講話)에서 “특구는 하나의 창구로,

기술의 창구이자 관리의 창구이며, 지식의 창구일 뿐 아니라 대외정책의 창구이다”라고 강조했다(鄧小平 1993:51-52). 이 발언은 선전을 단순한 경제 실험장이 아닌, 국가 발전 전략을 가시화하고 개방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정치적 모델로 규정한 것이다. 이후 선전은 ‘중국 경로(中國道路)’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실험의 공간, 곧 신시대의 ‘선도적 시범구’로 호명되었다(張超文 외 2020). 시진핑 역시 2020년 경제특구 40주년 기념대회에서 선전을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의 생생한 실천이자, 국가 발전의 새로운 여정을 탐색하는 선도자”라 명명하며, “개혁은 멈추지 않고, 개방은 멈추지 않는다”는 신시대의 신념을 천명했다(習近平 2020). 이처럼 선전은 국가 담론 속에서 ‘개혁·개방의 최전선’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시범구’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저우윈과 허민제(周雲·賀敏潔 2024:54-56)가 지적하듯, 이러한 위상은 단순히 성장의 성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전은 정책적 개방을 넘어 제도 개혁으로 나아가며, 행정·시장·법치 영역의 변화를 선도한 실험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그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선전은 ‘중국 경로’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제도화하는 국가적 엔진이 되었고, ‘특구 정신’과 ‘공동부유(共同富裕)’ 담론을 결합해 발전의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체제를 표상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위험관리의 담론까지 포괄하며, 신시대 국가 프로젝트의 압축적 기호로 기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신화는 필연적으로 한계와 긴장을 내포한다. ‘선전 속도’와 ‘특구 정신’은 초고속 성장을 찬미하는 국가 담론의 핵심 기호로 작동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과 사회적 비용은 발전의 서사 속에 미화된다. 이때 노동 착취, 주거 불안, 지역 간 격차 등 구조적 문제는 발전의 명분 아래 부차적인 것으로 처리되거나 시야 밖으로 밀려난다.

〈바보들의 기적〉은 바로 이 발전 신화가 유지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영화 속 선전은 국가가 설계한 이상적 공간으로, 내부의 균열이나 갈등이 철저히 배제된 채 제시된다. 화면은 발전의 성과와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전이 여전히 ‘기적’이 가능한 도시임을 반복적으로 확인시킨다. 이때 선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국가가 기획한 정치적 시간과 제도적 질서를 시각적으로 수행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결국 영화는 이러한 공간 연출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감정의 흐름 속에 은연중 각인시킨다.

## 2. 영화 속 선전의 양가적 공간

〈바보들의 기적〉 속 선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발전 신화를 지속적으로 재현하는 무대로 제시된다. 영화는 항공촬영과 파노라마 샷을 통해 마천루의 화려한 전경을 강조하며, 선전을 거대한 도시 스펙터클로 부각한다. 이러한 시각적 구성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압축된 이미지로 묶어 국가 발전의 상징성을 시각화한다.

그러나 선전을 양가적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를 포착하는 카메라의 시선이다. 영화는 드론을 활용해 선전의 마천루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이며, 도시의 장대함과 화려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장면들은 선전을 국가 발전의 스펙터클로 시각화하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상징적 풍경으로 압축한다. 한편, 징하오가 자오천창 회장을 찾아 선전역으로 향하는 장면에서는 트래킹 샷으로 성중춘의 좁고 뒤엉킨 골목을 따라가며 인물의 분투를 밀착해 보여준다. 또한 버드 아이 뷰 샷으로 도심 중심부와 대비되는 성중춘의 밀집된 주거 구조를 위에서 포착하며, 화려한 외관 아래 감춰진 불안정한 현실을 드러낸다. 이 시각적 대비는 선전 내부의 위계와 불균형을 부각한다.

또한 화려한 도시의 이면은 인력시장에서 징하오와 량 아저씨가 사람을 구하는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성중춘의 좁고 낮은 골목, 임시 컨테이너 공장과 연립주택이 하층의 일상을 보여준다면, 인력시장은 그 일상이 하루 단위 노동으로 유지되는 방식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이 장면에서 징하오가 제시한 일당 천 위안은 현실적으로 수락되기 어려운 조

건이며, 인력업체 직원은 그럼에도 그 일을 맡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死活找不着活的人(무슨 수를 써도 먹고살 일이 막막한 사람들)”이라 부른다. 이는 일자리가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는 노동 현실과,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삶의 조건을 보여준다. 그러나 영화는 이 절박함을 오래 머물러 보여주지 않는다. 곧이어 징하오의 제안은 ‘기회를 붙잡는 도전’의 이야기로 전환되고, 절망의 장면은 낙관의 서사로 재배열된다.

영화는 이러한 하층 노동의 현실을 고층 빌딩 유리창 청소 장면으로 확장하며, 한층 선명한 공간적 대비를 구축한다. 투명한 유리창은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경계이자, 선전의 발전과 그 이면의 불안정을 동시에 비추는 표면이다. 내부의 고급 레스토랑과 사무실 사람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도시의 ‘Nice View’를 감상하지만, 징하오는 로프에 몸을 의지한 채 유리 외벽을 닦는다. 카메라는 그의 몸을 따라 수직으로 이동하며, 도시의 번영이 불안정한 노동 위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내부의 전망은 그에게 닿을 수 없는 세계이자, 동시에 도달해야 할 목표로 제시된다. 영화의 영문 제목 Nice View와 공장 이름 ‘하오징(好景)’은 이러한 아이러니를 압축한다.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은 외부 노동자의 위협과 희생을 통해 완성되며, 영화는 이 대비를 통해 ‘이 전망이 정말로 Nice View인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 3. 선전 속도와 신화의 연장

〈바보들의 기적〉은 징하오의 다중 노동과 돌봄이 교차하는 일상을 통해 ‘선전 속도’를 구체화한다. 그는 여동생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휴대폰 부품을 수리하고 요양원의 가전을 고치며, 때로는 고층 빌딩의 유리창을 청소한다. 아침에는 여동생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데리러 가는 등 돌봄 노동도 병행한다. 공장을 세운 이후에도 그의 하루는 멈추지 않는다. 직원들의 월급과 공장 월세라는 새로운 데드라인이 더해지며, 그는 낮에는 빌딩 청소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밤에는 부

품 해체 작업에 몰두한다.

이 반복되는 노동은 단순한 고난의 묘사가 아니라, 개인의 신체가 장시간 노동과 경쟁을 전제로 한 도시의 생산 체계 속에서 소모되는 과정의 재현이다. 영화는 징하오의 하루를 통해 생계 노동과 돌봄 노동이 중첩된 현실을 드러내며, 그의 시간이 어떻게 도시의 ‘속도’에 흡수되는지를 보여준다. 청년 세대의 과로는 선진 발전의 보이지 않는 기반이 되지만, 영화는 이를 제도적 모순으로 제시하지 않고 가족을 위한 헌신과 분투의 이야기로 치환한다. 샤오양(Xiao 2025:9)은 이를 “현대 중국 노동자가 직면한 다중 업무와 초과 노동, 그리고 보장되지 않는 안녕”의 구현으로 해석한다. 즉, 〈바보들의 기적〉은 선진을 건설 속도의 기록이 아니라, 청년 세대가 몸과 시간을 갈아 넣으며 살아가는 ‘속도의 도시’로 묘사한다.

영화는 이어 이러한 도시의 양가성과 불평등이 세대 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재편되는지를 보여준다. 이 지점은 본 장의 핵심 문제의식인 ‘기적의 공간’이 어떻게 국가적 서사로 재조정되는가를 읽어내는 단초가 된다. 이전 세대의 산업화 경험과 새로운 세대의 창업 서사는 서로 맞물리며, 도시의 균열이 국가 발전의 지속성을 증명하는 이야기로 치환된다.

자오천창은 세대적 접합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그는 개혁개방 초기 ‘선진 속도’를 직접 체험한 1세대 기업가이며, 영화는 그의 회고와 징하오의 현재를 겹쳐놓는다. 자오천창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성취를 징하오가 단기간에 반복하는 서사 구조는, 도시 내부의 격차를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발전의 필연으로 전환하려는 장치로 작동한다. 개인의 성공은 세대의 경험과 연결되며, 과거의 신화는 청년 창업의 분투를 통해 갱신된다. 이때 선진은 다시 ‘기적이 가능한 도시’로 재정의되고, 내부의 균열은 발전 담론의 지속성을 보증하는 서사적 장치로 전환된다. 결국 이러한 재구성은 도시의 이중성을 봉합하며, 국가 발전 서사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지점은 마누엘 카스텔의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s)' 개념과도 맞닿는다. 그는 이를 “영토적 연속성 없이도 사회적 실천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물질적 조직”이라 정의하며, 정보·통신·운송망의 인프라, 금융 지구 같은 노드(node), 이를 운영하는 행위자의 거점, 전자적 상호작용의 공간 등으로 설명한다(Manuel Castells 1999:295-296). 이 관점에서 선전은 국가와 자본의 흐름이 교차하는 실험장이다. 금융 지구의 마천루는 글로벌 자본의 결절점으로, 화창베이의 산자이폰 단속 뉴스는 국가가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제하며 속도를 재편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반면 성중춘과 인력시장은 이 흐름의 주변부에 머물며, 도시 내부의 불평등과 위계를 드러낸다. 영화는 자오천창의 회고와 징하오의 현재를 병치함으로써, 과거의 '속도'가 현재의 윤리로 반복 수행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로써 발전 담론은 회고적 기억이 아니라, 제도적 속도 윤리를 재생산하는 서사로 변모한다.

이러한 공간 배열이 시간의 압박과 결합할 때, 선전은 단순한 경제성장의 무대가 아니라 제도적 속도 윤리를 실험하는 장으로 변모한다. 첸·우드워스는 중국 도시화의 핵심을 “속도는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라 제도적 설계의 산물(Speed is by design)”이라 규정하며, 간부 평가 제도·도시계획·토지 금융 시스템이 결합해 ‘도시 속도 기계(urban speed machine)’를 작동시킨다고 분석한다(Chien & Woodworth 2018:6). 영화 속 화창베이 단속 장면은 이러한 제도적 설계를 시각화하고, 징하오가 수술비 마련을 위해 테드라인에 쫓기며 이중, 삼중의 노동을 감내하는 장면은 그 속도의 윤리가 개인의 신체와 시간을 통해 수행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결국 선전은 국제 자본과 국가 권력이 교차하는 결절점이자, 그 외곽의 희생을 떠맡는 주변부를 동시에 품은 공간으로 나타난다. 영화는 고층 빌딩과 성중춘, SNE사의 넓은 사무실과 징하오 공장의 비좁은 작업장을 보여주며, 발전 서사의 화려한 외피와 내부의 불균형을 동시에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적 구조는 제도적 모순을 추궁하는 비판으

로 확장되지 않고, ‘기적이 가능한 도시’라는 감동 서사 속에서 봉합되어 버렸다.

#### IV. 기적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바보들의 기적〉에서 ‘기적’은 비범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일상의 곤란을 짊어진 평범한 이들이 상호 의존과 협력 속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다. Ⅱ장과 Ⅲ장에서 살펴본 시간과 공간의 국가 기획 위에, 본 장은 그 ‘기적’이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가를 분석한다.

영화는 주인공 징하오가 연쇄적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과정을 따라간다. 그는 여동생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 부품 해체와 재활용 사업을 구상하고, SNE사와의 협상 끝에 계약을 성사시킨다. 이를 기반으로 하오징 공장을 세우며 새로운 출발을 모색한다. 이때 영화는 징하오가 처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발휘하는 능력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부모도 학위도 자본도 사회적 네트워크도 없는 청년이지만, 기술적 이해력과 협상력, 문제 해결에 대한 집요함으로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간다. 특히 출장길에 오른 자오천창과 다시 만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좁은 골목을 질주해 끝내 그의 앞에 앉는 장면은 이러한 결단력과 실행력을 드러낸다. 영화는 클로즈업과 빠른 편집을 활용해 제도적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자력으로 활로를 만드는 징하오의 모습을 부각한다. 이러한 집요함이 바로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다.

이 집요함은 곧 시간의 압박과 맞물리며 더욱 두드러진다. 여섯 살 반의 징통은 여덟 살이 되기 전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했고, 징하오에게 남은 시간은 1년 반뿐이었다. 여기에 부품 납품 계약의 조건 또한 가혹했다. 품질 검사에서 합격률 85% 이상을 달성해야만 80만 위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계약금은 없었고 공장 설비나 인력 지원도 제공되지 않았

다. 한정된 자원과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그는 4개월 안에 모든 공정을 완수해야 했다.

시간의 제약에 더해 자본의 부족도 그를 몰아세웠다. 손가락이 부러진 채 고층 빌딩 유리창 청소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부상으로 해고되고,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난 그는 여동생과 함께 공장 한편에서 지냈다. 빗속에서 우비 하나에 의지해 동생을 데리러 가는 장면은 그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와 삶의 고단함을 응축한다.<sup>3)</sup>

그러나 징하오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동료들의 신뢰와 연대였다. 직원들은 징하오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임금이 미뤄져도 함께 버티겠다고 나선다. 그의 위기는 곧 공동의 과제가 되고, 이 연대감이 절망의 순간 그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다. 협력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상호 의존의 윤리로 확장되고, 흩어져 있던 개인들은 공동의 목표 아래 결속한다. 이때 징하오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조건, 즉 공동체적 연대의 형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영화는 이를 통해 '기적'을 개인의 분투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집단적 수행의 결과로 제시한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징하오와 량 아저씨는 인력시장에서 제도권 노동에서 배제된 이들과 마주한다. 인력사무소 직원은 “정말 먹고살기 막막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 돈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량 아저씨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달라고 요청한다. 결국 모인 인물은 청각 장애를 가진 왕춘메이, 전과로 일자리를 잃은 복서 장룽하오, 하루 종일 PC방에 머무는 ‘탕핑(躺平)’ 청년 장차오와 류형즈 등 사회의 주변부 인물들이다. 이 장면은 중국 노동시장의 배제 구조와 비공식 노동의 현실을 드러내며, 징하오의 공장이 이들에게 생존을 이어주는 임시적 안전망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3) 영화의 폭우와 태풍은 징하오가 직면한 위기와 절망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강화하는 장치다. 짙은 구름과 거센 비바람은 위기의 도래를 예고하며, 좌절과 불안을 감각적으로 전달한다.

영화는 이들의 협업 과정을 통해 ‘기적’이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구체화한다. 생계가 막막했던 이들은 낮은 임금에도 일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선택의 순간 흩어져 있던 개인들은 공동의 목표를 매개로 서로를 지탱하는 관계로 변화한다. 영화는 이들의 성실함과 상호 배려를 집단적 윤리로 제시하며, 이를 제도적 보상이나 권리 의식이 아닌 ‘함께 버티기’라는 생존의 정서로 설명한다. 결국 ‘기적’은 제도 밖에서 형성된 협력의 윤리를 통해 완성된다.

후반부에서 이들의 연대는 개인적 구원을 넘어 사회적 성공의 서사로 확장된다. 왕춘메이는 노동자 지원센터를 세우고, 장룽하오는 복싱 클럽과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며, 장차오와 류형즈는 7개 지점을 둔 PC방 프랜차이즈를 창업한다. 자막은 그들이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각자의 ‘기적’을 이루었음을 알린다. 이 결말은 ‘선한 사람에게 보답이 돌아온다’는 도덕적 인과의 서사를 완성하며, 공동체의 연대가 국가가 승인한 ‘성공’의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동적 완결은 동시에 불편한 질문을 남긴다. 영화 속 ‘기적’은 제도 밖의 선의와 인내로 가능해졌지만, 바로 그 감동의 서사가 중국 사회의 제도적 결핍과 구조적 불평등을 가려 버렸기 때문이다.

## V. 나가며

본 논문은 〈바보들의 기적〉이 단순한 개인의 분투기를 넘어, 국가가 선택한 시간·공간·주체의 배열 속에서 ‘기적’이라는 서사를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분석했다. Ⅱ장에서는 2013년과 2019년, 그리고 2022년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호출된 정치적 시간임을 밝혔다. Ⅲ장에서는 선전의 ‘선전 속도’와 마천루의 화려함, 그리고 그 이면의 성중춘을 대비시켜 발전 신화와 주변부 현실이 교차하는 정치적 공간으로 기능함을

논의했다. IV장에서는 징하오와 '기적 공동체'가 시험과 배제를 거쳐 국가가 승인하는 청년 주체와 공동체의 형상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영화 후반부에서 징하오와 동료들이 해체한 부품을 SNE사 납품 트럭에 실어 보내는 장면은 결말의 의미를 집약한다. 트럭이 출발하는 순간 차량 뒷면에 새겨진 “기적은 미래를 창조한다(奇蹟創造未來)”라는 문구가 카메라에 포착되는데, 이 문구는 영화의 ‘기적’이 개인의 성취를 넘어 국가 발전의 비전으로 확장되는 순간을 상징한다. <바보들의 기적>의 ‘기적’은 청년의 노력과 공동체의 연대를 국가적 미래의 서사로 편입시키는 정서적 수행의 결과이며, 그 감동의 구조 자체가 국가 기획의 정당성을 재현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결말부 신제품 발표회 장면의 자막은 징하오가 2015년 창업과 동시에 복학해 2019년에 대학을 졸업했음을 알려준다. 이는 결혼식장에서 “학교에 돌아가 학업을 마치고 싶어요”라고 말하던 장면과 연결되며, 개인의 열망이 제도적 성취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영화는 이를 통해 징하오를 단순한 육체노동자가 아니라, 학습 능력과 기술 역량을 겸비한 청년이었음을 재확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는 철저히 국가가 설정한 제도적 궤도 안에서만 인정된다. 그 결과 <바보들의 기적>의 ‘기적’은 가족을 지켜낸 돌봄의 기적이자, 사회적으로 승인된 성공의 기적이며, 동시에 국가가 부여한 조건을 충족한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제도적 기적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서사의 완결은 음악과 정서의 연출을 통해 더욱 공고해진다. 엔딩 직전 울려 퍼지는 홍콩 록밴드 Beyond의 <하늘은 넓고 바다는 끝 없다(海闊天空)>는 “수없이 차가운 시선과 조롱을 마주했지만, 마음속의 이상을 포기한 적은 없다”라는 가사를 통해 청년 세대의 인내와 이상 추구를 고양시킨다. 노래는 징하오의 분투를 개인의 영웅적 성취로 끌어올리며, 관객 개개인을 ‘기적의 창조자’로 호명하는 정서적 클라이맥스를 완성한다. 그러나 이 감동의 연출은 징하오가 감당해야 했던 의

료비와 생계의 압박, 고층 외벽 노동의 위험, 그리고 청년 세대가 처한 구조적 제약을 지워 버린다. 음악이 불러일으키는 낙관의 정서는 현실의 불평등을 응시하게 하기보다, 그것을 국가 발전의 긍정적 감정으로 전환시킨다.

또한 <바보들의 기적>은 영화국, 상하이시, 선전시가 제공한 세 가지 공적 기금의 동시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sup>4)</sup> 이러한 지원 구조는 “모두가 기적의 창조자”라는 메시지가 자생적 성취가 아니라 당 중앙과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기획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특히 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자,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 등 복합적 도전이 교차한 시기였다. 이 시점에서 영화가 강조하는 단결과 헌신의 서사는 국내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호소함과 동시에,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문화정치적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바보들의 기적>은 청년과 공동체의 헌신을 감동적으로 재현하면서, 그 헌신을 국가가 설계한 발전의 내러티브 속으로 편입시키는 전략을 수행한다. 관객은 영화 속에서 ‘기적’을 목격하지만, 그 기적은 언제나 국가가 정한 조건 속에서만 가능하다. 결국 남는 질문은 오늘날 중국 관객들이 왜 이러한 ‘따뜻한 이야기’를 열망하는가, 그리고 그 감동이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기획 속에서 조직되는가이다. 이 질문은 단지 한 편의 영화에 대한 의문을 넘어, 신시대 중국 영화가 감동과 정서를 매개로 국가 담론을 수행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탐구해야 할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4) 영화국 우수영화 특별기금 지원 프로젝트(國家電影局電影精品專項資金資助項目), 상하이시 문화발전기금회 주요 문예 창작 지원 프로젝트(上海文化發展基金會市重大文藝創作資助項目), 선전시 선전문화사업발전 특별기금 지원 프로젝트(深圳市宣傳文化事業發展專項基金資助項目)의 지원금을 받아 제작되었다.

## ■ 참고문헌

- 이중희(2010), 「중국의 산자이 휴대폰 열풍의 실태와 그 요인」, 『중국학 연구』 제51집, 중국학연구회, 289-311.
- Chien, Shiuh-shen & Woodworth, Max D.(2018), “CHINA'S URBAN SPEED MACHINE: The Politics of Speed and Time in a Period of Rapid Urban Growth”,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2(4), 723-737.
- Manuel Castells(1999), “GRASSROOTING THE SPACE OF FLOWS”, *Urban Geography*, 20(4), 294-302.
- Yang, Xiao(2025), “The Cinematic Construction of Social Acceleration: Nice View(2022) and the Other Side of ‘China Speed’”, *Asian Studies Review*, May, 1-16.
- 陳玉婷(2023), 「現實題材電影《奇蹟·笨小孩》的商業化策略研究」, 『西部廣播電視』, 2023年 第07期, 四川省廣播電視新聞與傳播研究所, 142-144.
- 鄧小平(1993), 『鄧小平文選(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 董曉婷(2023), 「新時代溫暖現實主義電影的創作原則——以《奇蹟·笨小孩》為例」, 『吉林廣播電視大學學報』, 2023年 第01期, 吉林廣播電視大學, 19-21.
- 奉麗群(2023), 「《奇蹟·笨小孩》的敘事美學及時代價值」, 『視聽』, 2023年 第01期, 廣西廣播電視臺, 87-91.
- 劉金旭(2022), 「“溫暖現實主義”電影敘事策略與價值取向」, 『當代電力文化』, 2022年 第11期, 中國電力企業聯合會, 102-103.
- 劉秋韻(2022), 「從《奇蹟·笨小孩》看中國現實主義電影的類型化策略」, 『西部廣播電視』, 2022年 第23期, 四川省廣播電視新聞與傳播研究所, 123-125.
- 劉正山(2022), 「2022年春節檔電影市場觀察」, 『中國電影市場』, 2022年

- 第03期, 中國電影集團公司, 17-20.
- 馬躡非·劉超一(2021), 「“儀式傳播”與“傳播儀式”: 春節檔電影的文化反思——兼評電影《你好, 李煥英》」, 『戲劇(中央戲劇學院學報)』, 2021年 第02期, 中央戲劇學院, 36-43.
- 祁海(2022), 「如何在春節檔取得好成績」, 『中國電影市場』, 2022年 第03期, 中國電影集團公司, 29-32+61.
- 邱麗(2022), 「生存困境與空間隱喻: 《奇蹟·笨小孩》的小人物敘事研究」, 『視聽』, 2022年 第06期, 廣西廣播電視臺, 101-103.
- 王晶(2022), 「電影《奇蹟·笨小孩》的空間敘事策略」, 『順德職業技術學院學報』, 2022年 04期, 順德職業技術學院, 86-90.
- 王欣汀(2022), 「另一種想象底層的方法《奇蹟·笨小孩》」, 『電影文學』, 2022年 第13期, 長影集團, 138-140.
- 吳冰(2023), 「《奇蹟·笨小孩》困境隱喻、形象塑造與美育價值」, 『四川戲劇』, 2023年 第07期, 四川省藝術研究院, 93-96.
- 銀路·李天柱·程躍(2010), 「“山寨”現象的一般規律及其政策建議」, 『科學學研究』, 2010年 第03期, 中國科學學與科技政策研究會, 321-327+338.
- 張慧瑜(2022), 「《奇蹟·笨小孩》: 全景與特寫下的城市中國」, 『電影藝術』, 2022年 第02期, 中國電影家協會, 101-103.
- 張澤華·張麗(2022), 「新主流電影視域下《奇蹟·笨小孩》的敘事策略與價值表達」, 『電影文學』, 2022年 第14期, 長影集團, 139-143.
- 趙軍(2022), 「春節檔對於中國電影與中國的意義」, 『中國電影市場』, 2021年 第04期, 中國電影集團公司, 16-20+24.
- 趙世城·高原(2022), 「《奇蹟·笨小孩》: 苦難敘事與受眾期待」, 『東方藝術』, 2022年 第04期, 河南省藝術研究院, 141-145.
- 趙詩琳(2022), 「《奇蹟·笨小孩》的現實暖色與範式更新」, 『藝苑』, 2022年 01期, 福建藝術職業學院, 28-34.
- 趙倩(2022), 「《奇蹟·笨小孩》勵志喜劇文本敘事策略」, 『電影文學』, 2022

年 第23期, 長影集團, 143-145.

周雲·賀敏潔(2024), 「經濟特區在推進中國式現代化中的使命擔當」, 『人民論壇』, 2024年 第04期, 人民日報社, 54-56.

杜思夢(2022.02.09.), 「《奇蹟·笨小孩》導演文牧野: 奇蹟, 就是永不放棄」, 『中國電影報』. <https://chinafilmnews.cn/Html/2022-02-09/8209.html> (검색일: 2025.04.20.)

胡智鋒(2023.03.29.), 「新時代影視創作呼喚溫暖現實主義」, 『光明日報』. [https://news.gmw.cn/2023-03/29/content\\_36461822.htm](https://news.gmw.cn/2023-03/29/content_36461822.htm) (검색일: 2025.07.21.)

孫飛(2018.10.07.), 「從“深圳速度”到“中國高度”——深圳經濟特區創新發展紀實」, 『新華社』. [https://fms.news.cn/swf/2018qmtt/10\\_7\\_2018\\_qm/index.html](https://fms.news.cn/swf/2018qmtt/10_7_2018_qm/index.html) (검색일: 2025.07.13.)

習近平(2020.10.14.), 「在深圳經濟特區建立40週年慶祝大會上的講話」, 『新華社』.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20-10/14/c\\_1126611290.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20-10/14/c_1126611290.htm) (검색일: 2025.07.13.)

張超文·王攀·李佳鵬·孫韶華(2020.08.25.), 「從改革開放“探路者”到新時代“示範區”——深圳特區40年鉅變折射中國道路優越性」, 『經濟參考報』. [http://dz.jjckb.cn/www/pages/webpage2009/html/2020-08/25/content\\_67043.htm](http://dz.jjckb.cn/www/pages/webpage2009/html/2020-08/25/content_67043.htm) (검색일: 2025.07.13.)

「國務院辦公廳關於印發2013年全國打擊侵犯知識產權和製售假冒偽劣商品工作要點的通知(國辦發[2013]36號)」, 『中國政府網』. [https://www.gov.cn/zwgk/2013-05/24/content\\_2410307.htm](https://www.gov.cn/zwgk/2013-05/24/content_2410307.htm) (검색일: 2025.06.10.)

「國務院關於大力推進大眾創業萬眾創新 若干政策措施的意見(國發[2015]32號)」, 『中國政府網』.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15-06/16/content\\_9855.htm](https://www.gov.cn/zhengce/content/2015-06/16/content_9855.htm) (검색일: 2025.06.10.)

「貓眼2022年票房排行榜」, 『貓眼專業版』. <https://piaofang.maoyan.com/rankings/year> (검색일: 2025.04.13.)

❖ ABSTRACT

State-Engineered Miracles  
: Affective Narrative and Political Closure in  
*Nice View* (奇蹟·笨小孩, 2022)

Lee, Bora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how *Nice View* (2022) constructs the concept of “miracle” not as a narrative of individual perseverance but as a result of state-engineered arrangements of time, space, and subjectivity. The film delineates three key moments: 2013, marking the beginning of regulatory crackdowns and social reordering; 2019, signifying the end of pre-pandemic achievement and stability; and 2022, characterized by renewed uncertainty. This tri-layered temporal structure reflects a politically curated sequence rather than a natural chronology, shaped by the state’s framing. Shenzhen, depicted as both a symbol of reform and a stage for national progress, obscures the inequalities and sacrifices of its peripheries within a narrative of affective optimism. The perseverance and solidarity of Jing Hao and the “miracle squad” transform systemic deficiencies into emotional fulfillment, aligning the narrative with the state’s vision of collective advancement. The concluding message—“everyone is a creator of miracles”—highlights that such inspiration is inextricably linked to institutional support from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By demonstrating how *Nice View* translates affective optimism into a political narrative of legitimacy,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cultural-political logic of Chinese cinema in the New Era.

Keywords: *Nice View*, miracle narrative, Shenzhen, state planning,  
political temporality

■ 논문투고일 : 2025. 09. 10

■ 심사완료일 : 2025. 09. 29

■ 게재확정일 : 2025. 10. 07

